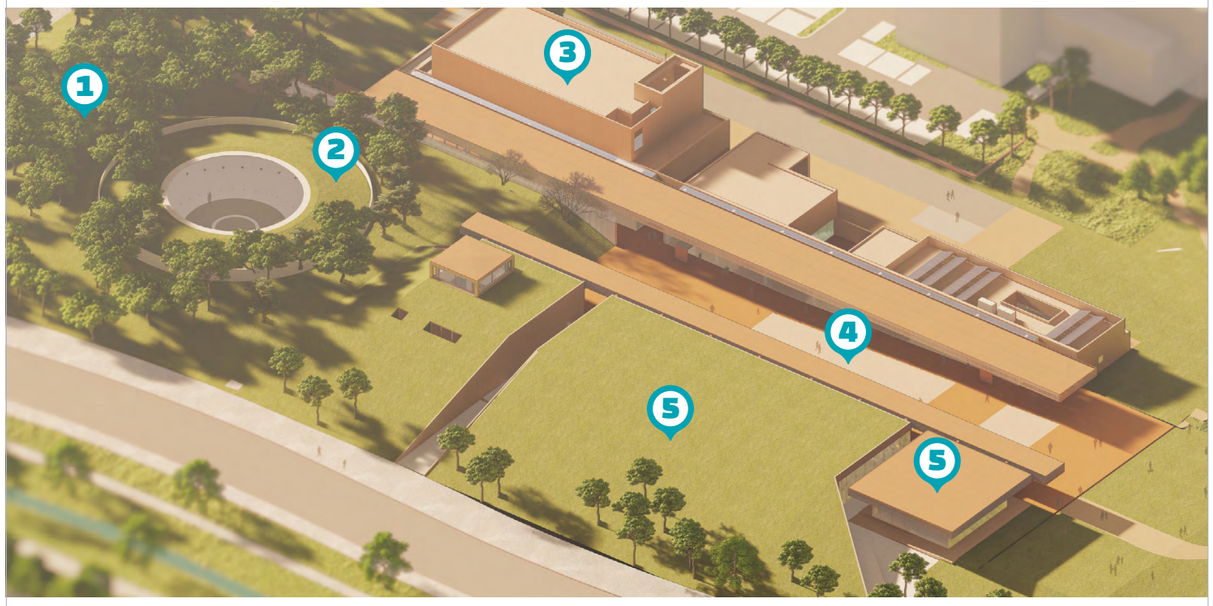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가 찾는 **4.16생명안전공원**

4.16생명안전공원은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찾아오고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자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있는 일상 속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배움과 성찰이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 기억의 숲

- 나무와 풀, 꽃이 어우러져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
- 전국의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와 해송이 어우러져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숲
- 편안한 숲 속 산책길을 걷다가 문득 마주치게 되는 아이들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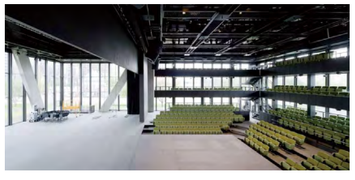


2 추모공간

-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기억하는 공간
- 열린 하늘을 통해 온전히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형 돔 공간
- 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연극, 음악, 공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극장의 역할 수행
- 건축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공간

3 다목적홀

- 공연과 행사, 전시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
- 지역과 연계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음향, 조명, 이동형 의자를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행사 가능



4 빛의 광장

- 공연, 행사, 버스킹, 휴식 등의 다양한 외부활동을 수용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자, 가족과 시민들이 스스로 채우며 만들어가는 공간
- 공원의 모든 공간과 장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도시형 광장으로서 기능
- 열린 공간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공원 외부와 적극 연결



5 상설전시&수장고

-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생명존중과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시와 교육의 공간
- 참사 관련 유류품과 유품을 활용한 전시 기획
- 상설전시 공간과 보이는 수장고를 연계하여 전시와 보관의 기능을 함께 수행
- 전시, 아카이브, 자료열람 등의 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라키비움 공간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가 찾는 **4.16생명안전공원**



추진일정

2015.1.28	2018.2.20	2019.2.28	2021.2-6	2021.7-2024.6	2025.2.13	**2027. 8**
세월호피해 지원법 제정 (추모공원 조성 명시)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생명안전공원 조성 발표	정부,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확정	국제설계공모 진행	공원 실시설계 (KDI 적정성 검토 진행)	착공식	준공 예정

기억의 승화, 희망이 깃든 **4.16생명안전공원**

별이 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다

여덟 군데로 흩어져 있는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으로 맞아주세요. 아이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시민들과 가까운 화랑유원지에 기억과 추모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기억은 비로소 우리에게 안전한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청소년의 꿈과 시민의 쉼을 담다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는 곳, 304개의 나무가 숲이 되는 곳. 도심 한복판에 생명과 안전의 숲길과 복합문화공간이 있는 4.16생명안전공원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고단한 일상을 치유하고 활력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국제적인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나다

상처에 주저앉지 않고 함께 연대하여 극복해 낸 안산 시민들의 노력을 보고 배우기 위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안산에 방문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12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가는 구조하지 않았고, 진실은 감춰졌으며, 책임진 자는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재난참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화성에서, 무안에서 또다시 시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예고된 참사였고,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누가 진실을 숨겼는지, 완전한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국가의 공식 사과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약속된 추모공간 건립도 아직입니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는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기억이 약속이 되는 날까지, 우리의 노란빛 동행은 계속됩니다.

하나.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정부는 세월호참사 및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십시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구조 방기와 진실 은폐로 피해가 확대된 명백한 국가재난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과는 있지만,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과 이후 사참위 권고 이행 약속을 비롯한 후속조치 등 국가의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진정어린 사과는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최선의 위로이며, 진정한 치유와 사회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 비공개 기록 전면 공개

대통령 기록물, 군·정보기관 관련 자료 등 세월호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 일체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참사 당일 청와대 컨트롤타워의 책임 방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구조 지연의 책임 소재는 아직도 베일 속에 있습니다. 진실 규명은 피해자의 권리이자 재발 방지의 출발점입니다. 국가가 기록을 감추는 한, '왜 304명이 죽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완전한 답은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셋. 4.16생명안전공원·기억추모시설 차질없는 건립

4.16생명안전공원과 전국의 기억추모시설을 약속대로 반드시 건립하십시오.

기억은 재발 방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추모공간은 단순한 위령의 장소가 아니라, 참사의 교훈을 시민과 사회가 함께 되새기고 생명안전 문화를 뿌리내리는 교육의 공간입니다. 이미 약속된 시설의 건립을 미루는 것은 국가의 또 다른 약속 파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묻고 있습니다.

넷. 사참위 권고 이행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정부는 성실하게 이행하십시오.

사참위는 방대한 조사를 거쳐 세월호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핵심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권고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두 번 지우는 일이며, 기록으로만 남은 권고는 또 다른 참사를 막지 못합니다.

다섯.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지원법 개정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실에 맞게 피해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십시오.

1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피해지원 제도는 피해의 범위와 깊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참사 피해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 치료 기한을 삭제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섯.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국가 재난대응체계 전면 개편

생명안전기본법을 즉각 제정하고,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십시오.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오송, 화성, 무안에서 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째 제정되지 않은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재난 예방·대응·수습·복구의 전 단계에 걸친 국가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멈추지 않는 한, 약속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4월 16일을 잊지 않습니다.
304명을 기억하고, 진실을 요구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함께 걷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연대와 동행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